

김해 바라밀선원 능허 선원장의 구도역정 시련 단고 피어난 '성불의 불꽃'



美를 초월해 美를 추구하는 불교 꽃꽂이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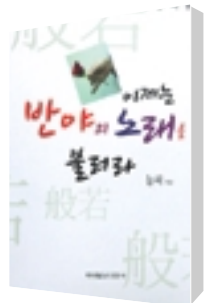
한국꽃 예술과 불교
지연 편저 | 인아 펴냄 | 2만원

꽃꽂이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꽃,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움의 극치인데 꽃들을 모아 의미 있는 형상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아름다움을 넘어선 자리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이 보고 느끼는 감각의 유한성을 뛰어넘으려는 노력, 꽃꽂이를 통해 아름다움 이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 꽃꽂이의 '맛'이다. 꽃꽂이도 선(禪)인 것이다. 부처님이 영산에서 한 송이의 연꽃을 들어 보인 것은 꽃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다. 그러나 꽃이 아니라 법이 어떻게 법이 전해져 가슴을 미소 짓게 했겠는가? 유마거사의 방에 내린 꽃비도 법의 비였고 <아미타경> 등에 묘사된 극락세계 역시 온갖 화려하고 장엄한 꽃으로 꾸며져 있다.

우리나라 전통 꽃꽂이의 기원도 불교의 전래로부터 시작된 불전공화(佛前供花)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쇠퇴일로를 걷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30년간 불교 꽃꽂이의 맥을 살리며 새로운 조형예술로서의 자리를 다지는데 크게 기여해 온 지연 스님이 펴낸 <한국 꽃 예술과 불교>는 불교와 꽃 예술의 역사적 관계 규명에서 작품론, 실습지도 등이 자세히 실려 있다. 기초지식과 기본적인 기법을 충실히 해설함으로써 초보자도 꽃예술의 세계에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된다. 불교의 각 의례에 따른 꽃 예술의 기본과 응용 방법 등도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지연 스님은 1972년 꽃 예술에 입문해 국제전에 30회 이상 출품했으며 전국불교꽃꽂이연합회를 창립,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불교의 꽃 이야기>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인연타 기자**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 지음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 1만2000원



10년 전 우리나라를 덮었던 IMF는 국민 모두에게 시련이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중견 기업까지 도산의 파고에 휩쓸리고 개인파산의 수렁에 빠져 거리로 내몰린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IMF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희망을 걸어 울려 삶의 길을 바꾼 사람도 많다. 시련을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가 됐지만 그 미증유의 고통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뜻밖의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났다. 김해 바라밀 선원 능허 선원장은 IMF라는 시절 인연 앞에서 철저히 망했던 경우다. 시장에서 풍나를 천원 아저씨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 그러나 나라로 향한 길을 극락으로 돌려놓았다. 선지식을 만나 각고의 정진을 한 결과였다. 능허 선원장에 게 있어 인생의 전환점은 선지식과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활법은 몸으로 전국의 사찰을 찾아가 니며 기도를 하다가 서울 보광사 조

실 정일 스님을 만나 "최 많은 이 중생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절박하는 순간 깨침의 씨앗이 발아됐던 것이다. "자네가 살아날 길은 있어.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는가?" 두말할 나위 없이 정일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기로 한 뒤로 능허 선원장은 산천에 광명진언 등으로 정진했다.

그 후 정일 스님으로부터 '무'자 화두를 받고 화두 일념의 정진에 각고의 세월을 보냈다. 3년이 넘는 기간 화두와 자신을 둘 아니게 제합시키는 수행을 통해 마침내 정일 스님으로부터 '성불 하겠네'라는 인가를 받았다.

물론 단상에 된 것은 아니다.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을 읽고 또 읽으며 그 대의를 깨치고 한 소식을 들었지만, 정일 스님은 "여러를 보았지만 조사선의 차별지를 풀어야 한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덕산탁발화'와 '파자소암' 두 공안을 통과하라는 것이었다.

능허 선원장은 목숨과 바꿀 각오로 3년을 정진했고 "조주어, 천년 살림살이 오늘 나에게 돌려 버렸구나"라고 힘차게 외쳤다. 정일 스님도 손을 맞잡으며 "눈 밝은 사람은 속일 수가 없구나. 부처님도 불법이 이렇고 역대조사도 이렇고 나 또한 이렇고 자네 또한 이렇하기에 전할 수 없는 법을 자네에게 전한다"며 인가했다.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는 능허 선원장의 구도역정과 깨침의 실험살이를 담백하게 담고 있다. 스승 정일 스님의 행장과 법문이 제1부를 장식하고 제 2부와 3부는 능허 선원장의 수행 정진 그리고 오도의 소식을 담고 있다. 마지막 제4부는 능허 선원장에게 '한 소식'을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묶여졌다.

나라를 극락으로 돌려버린 능허 선원장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간절하게 당부한다. "시작도 끝도 없는 이 자리를 철저히 깨달아 무시(無始)로 실천하는 '착한 사람'이 되라." **인연타 기자 mian1@hanmail.net**

불교, 우리 종교문화를 들여다보는 거울



한국의 종교 불교
최준식 지음
이화여대 출판부 펴냄 | 1만2000원

불교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유교가 한국인들의 사회적 성격을 결정했다면 불교는 한국의 종교문화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남아있는 한국의 문화재 가운데 70% 이상은 불교문화재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절경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입문서이다. 저자는 서론에서 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고 있는데, 과거 불교가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러나라에 얼마나 큰 사상적·문화적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20세기에 서양으로 건너간 불교가 동서문화 융합의 주역으로 일

마나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인들은 불교를 받아들일 때 교리를 받아들이에 급급했다고 말한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세계관으로부터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 깊이 있을 수 없는 자비 사상 앞에서 경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불교를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급속히 불교화시켜 나갔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저자에 따르면 불교는 중국에만 머물지 않고 곧 중국의 이웃인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됐으며, 일본에서는 고대문화 기틀 마련에 불교가 초석이 됐다고 한다.

1부에서는 불교가 어떤 종교이고 붓다는 어떤 인물인지 그의 가르침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이어 2부에서는 불교의 발전과정과 승가의 형성, 초기 불교의 전개, 대승의 출현과 한국으로 전파된 북방 불교의 모습이 소개된다. 마지막 3부에서는 한국불교가 중국이나 일본 불교와 다른 점이 특징을 중심으로 나열돼 있다. **김주일 기자**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불상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한국불상의 원류를 찾아서2
최완수 지음
대원사 펴냄 | 3만원

삼국시대 대표적 불상인 국보 제 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이 불상은 소녀처럼 보이는 옛된 인물이 날씬한 자세를 뽐내고 앉아 있다. 이 불상에서는 의형적인 모습 이외에도 당시 영토 분쟁을 받았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상황과 민심을 읽을 수 있다. 전쟁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미륵이 나타나 현재의 고통을 없애줬으면 하는 발원이 많아졌고 삼국은 이를 계기로 민심 결집 수단적으로 사찰마다 미륵보살상을 조성했다. 이런 와중에 민심을 달래기 위한 미륵 하생(下生·출현)이기도 유무되고 각각 간의 미륵 생탈전도 벌어진다.

최완수(65) 간송미술관 연구실장이 최근 출간한 <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 2>에서는 삼국에서 시작해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삼국 시대를 지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는 불교 교단에서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행하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이른바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때는 미륵보살상 대신 부석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처럼 아미타 불상이 조성됐다고 저자는 덧붙인다. 또한 이 책은 '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란 제목과 '미륵 하생과 아미타 출현'이라는 부제목에서 보듯, 미륵보살상과 아미타 불상의 원류를 찾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저자가 삼국의 역사를 편만한 역사책 이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한 시대의 미술이 세상과 동떨어진 채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피다	최한희 편저	운주사
2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김운수	한신사
3	하루 108배 내용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강성재	아름다이어
4	연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황호	미음의 숲
5	인연법과 마음공부	해국	효린
6	절을 가차게 잘하는 법	창건	붓다의 마을
7	안거	봉문	법보신문사
8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9	영물수행일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10	오대산 노승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서**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통,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통>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대웅전 완공 기념 피력할인!!
바로보인 전통록 전5권 - 5만원 (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 105,000원 (30%할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술 법회가 7월 1일(토) 열립니다.
◆서울선원 ☎ 02-522-0122(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11시
◆광주선원 ☎ 062-944-4088
선문염송/6월17일(매월 셋째 일요일) 오후 2시
◆부산선원 ☎ 051-545-2460
◆반야심경/6월24일(매월 넷째 일요일) 오후 3시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지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규칙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중앙병원에서 임상결과와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합

움직이거나
털만만 열어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